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의 요람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전국 16개 테크노파크중 하나다. 1998년 개원 이후 유망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비롯, 교육 훈련, 정보교류, 연구개발 등 중소기업에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산업지원부, 경기도, 안산시의 재정·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인근 6개 대학을 연결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위한 연구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59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품질 인증, 위탁생산,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있다. 경기지역의 명실상부한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가본다.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다양한 혜택제공

올해로 개원 10년을 맞이하는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상3~10층 건물4개동(기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동 2개, 지원편의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2008년 9월이면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라는 건물동이 추가로 완공되어 단지가 확충될 예정이다.

지난 1998년 설립 이래 115개의 벤처기업을 배출했고 현재 59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해 각종 지원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벤처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고가의 연구개발 장비를 대여해 주는 공용장비지원센터 운영이다.

현재 공용장비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공용장비 및 바이오 장비들은 총 45종 50억 원 규모로 센터에서 보유한 대부분의 R&D 장비들의 시료당(실험건당) 사용료는 1만원으로 5억 원 상당의 전자현미경을 사용할 경우 내는 수수료가 10만 원 정도다. 지난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된 2004년부터는 매해 300여개의 기업이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공동장비 연구시설에서 값비싼 실험기기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폐수처리 등도 기업체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 연구개발에만 전력할 수 있다"고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했다.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기술이전, 해외규격인증획득을 비롯하여 해외특허권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내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의 지식재산권취득과 보호를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특허 및 실용신안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네트워크 허브(Hub)역할 수행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연구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며 대학의 고급두뇌와 기업의 사업화 능력을 결합하는 '테크노폴리스'로 도약하기 위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 중요 산업분야인 화학, 전기, 전자, 자동차 분야 중 핵심품목에 대한 기업 공동 또는 기업과 대학·연구소간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경기도 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지원정책으로 지난 2006년 8억 원을 들여 5개 과제를 지원한데 이어 2007년에는 총34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한 바 있다.

지원분야는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분야의 중점 육성분야 44개 품목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이 되고, 참여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산학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심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기술혁신클러스터확대조성, 기술개발기반구축, 기술경영지원, 기술사업화지원, 지역기술혁신시스템구축 등 5개 분야에서 36개 단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 안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제품개발과제와 현장 애로기술해결과제에 대한 지원도 계속 나신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자에게 소요자금과 시설 등을 지원하는 신기술보육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안정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갖추지 못한 고가의 첨단장비를 배치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에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①2008년 9월에 완공될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②중소기업의 지식재산보호에 앞장서는 '경기지식재산센터'

③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한 '2007 안산신기술산업박람회' 행사



기술혁신 클러스터 조성에도 앞장서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혁신과 경영에 필요한 자원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화시키고 관련기업 및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기술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앞장서 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산시험 연구센터,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 한국센터의 유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지난 2006년 6월 대기업 민간연구소인 LG소재부품연구소(LG이노텍, LG마이크론)가 개관해 전자부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대형국책 연구소와 대기업 기술연구소가 연이어 들어섰다. 이러한 국책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는 전국 16개 테크노파크중에서 가장 우수한 지원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연구소의 기술연구분야를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기 전자제품의 국내외 품질인증, 시험평가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신소재 고기능성 섬유분야와 지능형로봇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한다.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는 전기 전자융합기술, 전자자료기기 기술개발을 하고 성능평가센터를 운영하며 국가공인검사 교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 한국센터에서는 차세대 핵심광학기술과 융합된 바이오 의료정밀 영상기술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경기ITP만의 자랑

중소기업 특허경영을 지원한다!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는 산하 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보호와 마케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특허 전문 인력의 상주를 통하여 출원에서 특허사업화까지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는 특허컨설팅 상담은 2007년에 457건을 수행했다.

또 해당기술의 선행기술여부 및 유사기술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선행기술조사지원 사업은 총 285건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했다.

또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는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사업의 경우는 총73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취득을 도와주었다. 또한 기업의 요청을 수렴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특허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포지셔닝 멘토링 사업은 총 10개 업체가 지원받았다.

이밖에 맞춤형 특허맵을 제작하여 연구개발방향제시 및 신제품 분쟁예방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특허맵 제작지원사업은 총10개사가 지원을 받아, 특허회피전략 수립, 신기술개발 방향설정, 특허기술동향 분석 등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또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투자마트 및 정부지원자금과 연계하는 특허사업화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총 5개 업체가 지원 받았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권리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총52건의 해외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득하도록 도왔다. 경기지식재산센터는 2008년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보호와 마케팅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와 경기지식재산센터(www.ripc.org/ansan)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다.



경기테크노파크 유망 입주기업

해양심층수 개발하는 '워터비스'



워터비스(대표 추용식, www.watervis.com)는 해양 심층수를 개발하는 유망 벤처기업이다. 해양심층수는 태양 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바닷속 물을 의미한다.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그네슘 등 여러영양 성분이 들어 있다.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청정한 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미 관련 사업규모가 3조원을 넘어선 거대 시장이다.

현재 워터비스는 강원도 양양에 해양심층수 양산공장을 설립, 동해 1100m 깊은 바다에 취수구 라인을 연결해 해양심층수를 육지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워터비스가 대량으로 해양심층수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수입 해양심층수 시장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양심층수를 가공식품에도 접목할 수 있게 된다.

워터비스는 롯데칠성, 하이트 진로, 석수엔퓨리스, 웅진 등과 MOU(양해각서)를 맺고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먹는 물 뿐만 아니라 화장품, 순수소금, 두부, 음료 등 다양한 사업을 기존 업체들과 제휴해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LED조명 전문업체 '아토디스플레이'



아토디스플레이(대표 박재환, www.bandilight.com)는 반도체 조명으로 불리는 LED 조명기기 생산업체이다. 회사 설립 2년 반만에 40억원의 연간 매출을 올릴 만큼 성장한 벤처업체이다. 이 회사의 주력제품은 '플렉시블(F)-LED'이다. 고휘도·저전력 LED를 모듈화한 제품으로 기존 네온이나 형광등의 대체는 물론이고 사인·인테리어 등 조명이 필요한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아토디스플레이는 이 같은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회사 매출의 절반인 10억원가량을 일본·호주 등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아토디스플레이는 현재 사인조명, 인테리어 분야에만 진출해 있으나 휘도 및 출력향상 등을 통해 백열등·형광등 위주의 일반 조명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현황

	기업명	생산품
1	(주)트리코스	WAP
2	(주)유신씨앤씨	의료정보
3	(주)에스티씨	전광판
4	이노스텍(주)	PZI
5	(주)인컴씨	CCTV
6	(주)오카스	광스위치
7	다신일렉트론(주)	전자부품
8	(주)나노에피	반도체
9	(주)텔스타	소형CD용 FPCBBLU
10	(주)아토디스플레이	LED,반도체장비
11	(주)펠스엠의료기	저주파치료기
12	(주)원더물전자	휴대폰부품
13	(주)S&D파워	무정전전원장치
14	(주)기해전기	휴대용하드디스크
15	(주)에드뷰	LCD부품
16	(주)하나시스템	계측기
17	소명	지문인식기
18	로카스	태블릿장치
19	(주)에코솔루션	토양정화
20	(주)백년기술	오염측정기
21	(주)셀텍	DNA 칩
22	(주)프라이텍 인터내셔널	화공약품
23	(주)파인컴	의약
24	이엔비나노텍(주)	첨가제
25	(주)기진씨어런스	암 치료제
26	구울리생명공학원(주)	독감치료제
27	엠씨티 코리아	신약개발
28	한국릴리	의약
29	(주)씨엘에스랩	의약품 및 중간소재
30	킴젠(주)	천식치료제 관절염치료제
31	(주)블루오션월드	해양심층수
32	한국필(주)	산업용필터
33	(주)세라랩	바이오세라믹스
34	(주)청화사	신약개발
35	(주)씨티아이바이오	신약개발
36	스텝케이(주)	줄기세포 치료제
37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코리아(주)	자동차부품
38	(주)이엘코리아	전자자동차
39	알프마이어코리아(주)	자동차부품
40	한스터크합자회사	공장자동화 부품
41	(주)광진포레시아	자동차용 실드도어모듈
42	(주)디엔에스	합성수지
43	(주)브이엔솔	자동차 부품
44	(주)월드전자기술	전자통신 부품
45	(주)제이텍	정화기
46	그랜드홀 한국사무소	버너
47	(주)한국에치피티	기계부품
48	영빔	전자파소재
49	(주)투엠	산업기계
50	퓨전에너지(주)	에너지발생 장치
51	한국전자화학(주)	PCB
52	(주)디에스	탈산제
53	(주)한수	화공약품
54	미지테크(주)	무기물
55	후로웰	나노스프레이어
56	(주)로드텍	도로포장장비
57	(주)마루트	집진기 및 송풍기
58	이화기계공업(주)	섬유열처리기계
59	원진이엔씨(주)	전해수기